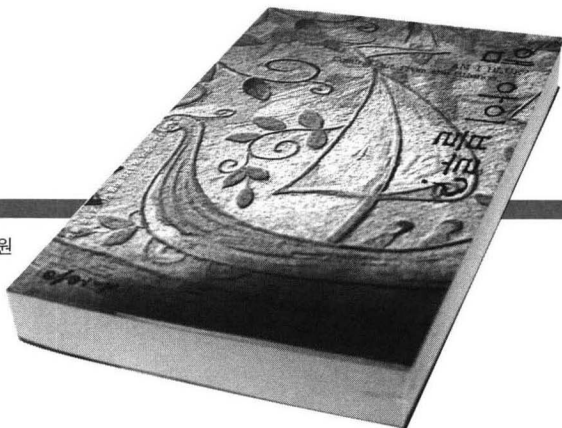


낭기열라의 Top5는? 《엠 아이 블루?》

낭기열라 강연숙 _ 편집장

《엠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바우어 외 지음 | 조응주 옮김 | 278쪽 | 값 8,500원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High Fidelity〉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톰은 자신의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자 절친한 친구인 딕과 배리와 함께 늘 Top5 리스트를 만든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자신을 차버린 여자 Top5, 월요일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 Top5 등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Top5를 꼽아보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Top 5는 일상의 즐거움이자 위안이다.

만일 나에게 우리 출판사의 책들 중에 소개할 만한 책 Top5를 꼽는 즐거움을 요청한다면 현재로서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첫 책 《엠 아이 블루?》 한 권을 내놓은 신생 출판사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책들을 출간한 미래의 어느 날, 다시 Top5 리스트를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로 분명히 《엠 아이 블루?》를 꼽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엠 아이 블루?》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책이었다.

《엠 아이 블루?》는 동성애를 주제로 미국의 저명한 청소년 문학 작가들에게 단편을 공모하여 엮은 소설집이다. 이 책은 그동안 외면당해왔던 동성애라는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단지 동성애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엠 아이 블루?》는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우리 서로가 지닌, '다름'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다름보다는 같음이 더 많다는 진실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뜻 깊은 책의 한국어판을 기획하고 준비한 1년 동안 기다림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내내 행복했다. 교정 작업을 거듭하면서도 매번 감동과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 《엠 아이 블

루?》의 작가들과 엮은이, 그리고 한국어판을 기획한 우리뿐 아니라 옮긴이와 북 디자이너,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책의 감동을 공유하고 정성을 다해주었던 것도 큰 행복이었다.

그 보람은 이제 많은 독자들이 보내오는 《엠 아이 블루?》에 대한 찬사와 격려로 이어지고 있다. 독자들에게서 이 책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었다는 리뷰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소감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큰 힘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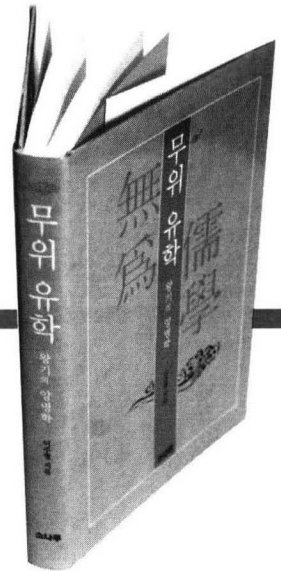
이런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서 재미있는 점은 13편의 단편 중 독자들마다 좋아하는 단편들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었다. 《엠 아이 블루?》에 실린 13편의 단편들은 제각기 독특한 문체와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 때문에 독자들의 취향도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사실 책을 만들면서 우리도 각자 《엠 아이 블루?》의 Top5를 꼽아보기도 했으며, 그 리스트의 일부는 시시때때로 바뀌곤 했다.

훗날 우리처럼 독자들이 수많은 Top5를 꼽을 때 거기에 《엠 아이 블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청소년을 위한 소설 Top5, 성장에 관한 아름다운 책 Top5,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Top5,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준 책 Top5 등등에 손꼽히면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한글**

아, 마음공부의 지난함이여!

소나무 유재현 대표

《무위 유학》 이주행 지음 | 376쪽 | 값 18,000원



이 책을 쓴 이주행과 만난 것은 1988년쯤이었나보다. 나는 신참 내기 출판인이었고, 그는 대학원에서 중국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다. 뜻이 통하고, 말이 통했다. 그래서 《논형》이란 책을 번역·출간하기로 했다.

그 전에 에피소드 하나.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늘 어울려 술 마시러 다니는 사이였다. 그는 이과라 토목과로 가고, 나는 문관데 갈 데가 없어 철학과로 갔다. 전공이 다른데도, 말이 곧잘 통해 술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늘 쾌활하던 이 친구가 침울한 자세로 막걸리 잔만 기울이는 것이 아 니가. 실연이라도 했는가 물었더니 그게 아니란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도 아니란다. 한참을 술잔만 기울이던 이 친구가 입을 열었다. “땀 두 개 만들면 내 인생 끝이다!”

알아듣지 못했던 술주정을 조각 그림 맞추듯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다. 어느 토목공학 교수가 신입생에게 땀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 큰 땀 공사는 20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 한 모양이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었겠지. 그런데 신입생 귀에는 ‘땀 두 개 만들면 사십 년, 그러면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들렸던 것이다. 그날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통음을 했다.

《논형》이란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은 1996년, 의기투합한 지 9년만이었다. 그 다음은 《주자어류》였는데 이 책은 10년이 넘게 걸린 듯싶다. 이렇게 책 두 권을 만드는 사이, 그는 중년을 넘긴 이준마가 되었고 내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서로의 인생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개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그래도 가끔 만나면 흥허물 없이 처음 만날 때처럼, 눈을 반짝이며 개똥철학을 논한다. 물론 그의 공부가 깊어갈수록 내가 배우는 학생이 되어감도 마땅한 일이었다.

《무위 유학》은 번역만 하던 이주행의 첫 번째 저작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듬고 풀어 낸 것이다. 그를 만나며 느끼는 것인데, 그는 ‘마음’에 관심이 많은 철학자다. 그래서 불교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에서는 양명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무위 유학》은 양명학에서도 4구교(四句教)를 중심 테마로 다루고 있다. 왕수인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자기 가르침을 4마디 짧은 글귀로 전했는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마음의 몸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無善無惡心之體

뜻이 움직이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有善有惡意之動

참된 앎이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 知善知惡是良知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네 爲善去惡是格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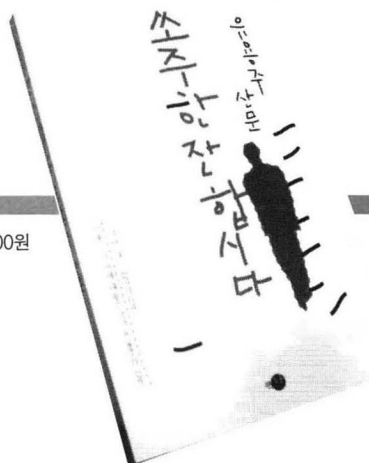
전덕홍이란 제자는 스승의 이 말을 착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왕기란 제자는 선악 자체도 뛰어넘으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무위 유학》은 왕기의 입장에서 왕양명의 철학을 재구성한 것이다. 철학사의 맥락에서 양명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이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왕기와 이주행처럼 읽을 경우 유학은 경세 철학의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주를 자유자재하는 마음의 해방학으로 기능할 것이다.

까르푸 진열대 위의 이것과 저것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르는 것이 마음이란 말인가? 아니면 지렁이의 마음에도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것인가? 이래저래 마음공부는 어렵구나! 독자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추천**

‘쏘주’ 와 어울리는 주인, 제대로 찾았다

큰나 박상문_편집부 팀장

《쏘주 한 잔 합시다》 유용주 지음 | 228쪽 | 값 9,000원



이 책은 특이하게 출간되었다. 유명한 저자를 섭외해서 원고를 받은 게 아니라, 출판사측에서 먼저 제목(쏘주 한 잔 합시다)을 정하고 이 제목에 어울리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용주라는 작가를 찾아냈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중인 유용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국집 배달원, 구두닦이, 벽돌공, 우유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범상치 않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 궤적을 담담하면서도 건강한 문체로 그려낼 줄 알았다. 그야말로 소주와 잘 어울리는, 그리고 서민적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찾던 인물이었다.

소주는 서민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는 친구다. 원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작가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려냈다. 원고를 받아마자 읽어보니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때는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고, 판매도 예상한 것처럼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책이 출간되자마자, 팬사인회와 강연회가 시작되었다. 독자들은 책 만큼이나 저자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10회의 팬사인회와 2회의 강연회, 정말로 강행군이 계속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서점으로 출근했다. 지방에서도 행사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불평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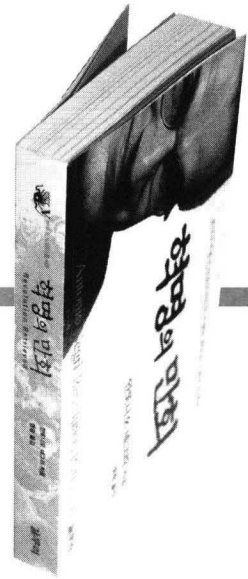
이 책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띄는 제목과 그 제목을 과감하게 알리는 광고 덕분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 책은 출판물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전광판을

공략해 광고를 했다. 커다란 전광판 광고가 떴다(?). 하늘에 떠 있는 '쏘주 한 잔 합시다' 라는 문구는 어느 누가 봐도 눈에 확 들어 왔다. 중앙 일간지 5단 내지 전면 광고, 지하철 무료신문 광고는 물론이고,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광판 광고도 제작했다. 그렇게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스티커를 만들어 직원들 자가용에 붙이고, 수첩, 책갈피를 만들어 전국 서점에 비치시켰다. 그야말로 세상이 '소주' 천국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이 책은 저자의 진솔한 삶의 기록이다. 더하고 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자가 살아온,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고 아프게 살아온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때로는 박수를 보내야만 했다. 저자의 말대로 "인생이란 뼈를 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한다. 온몸으로 삶을 부딪쳐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작은 희망 하나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해마다, 모두모두 근하병술謹賀丙戌!

자본주의 손아귀에서 구해낸 혁명적 맑스

갈무리 오정민_ 책임편집출판 1부장



《혁명의 만회》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 영광 옮김 | 504쪽 | 값 18,500원

《혁명의 만회》는 '유령' 과 같은 책이었다. 한국에서 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책에 관심이 있던 일부 독자들은 "그 책 아직 출간 안 됐나?" 혹은 "어, 난 본 것 같은데?"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아직 출간 되지 않은 책을 독자들은 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들은 '유령' 을 본 것일까?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런 상황에는 사연이 있다.

《혁명의 만회》는 《제국》을 출간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사회 운동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논쟁적인 인물이 된 안토니오 네그리가 1960년대 이래로 이탈리아의 혁명적 좌파에 깊이 관여했던 시기 전반에 걸쳐 집필한 핵심적인 정치적·이론적 논문들의 선집이다. 이 논문들은 1960년대 오빠라이스모(노동자주의)에서 발생하여 1970년대 아우또노미아(자율) 운동에까지 이르는 욕구의 해방과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에 대한 거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새로운 코뮤니즘적 계급정치의 발전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쟁들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비판적 준거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출판사는 하루라도 빨리 출간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의지 표현으로 신간이 나올 때마다 근간 도서 목록에 넣어두었다. 독자들은 《혁명의 만회》가 나왔는지, 아직 출간이 안 되었다면 언제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출간 계획과 역자의 번역 정도를 점검하며 최대한 출간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아우또노미아 운동을 소개하거나 다루는 글과 토론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고, 《혁명의 만회》에 있는 논문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이 책은 더욱 유명해져 버렸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책이었으니 독자들이 '출간' 되었다고 생각할 만도 했다. 《혁명의 만회》라는

'유령' 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2004년에 출간 예정이었던 《혁명의 만회》는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며 올해인 2005년 10월 말에 드디어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혁명의 만회》는 어떤 책일까?

《혁명의 만회》를 편역한 미국의 레드 노트스 Red Notes는 "맑스의 발본적 충동을 약화시키고 신비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아귀로부터 '혁명적인' 맑스를 구출해 내려는 네그리의 시도이다. 우리는 이 책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계급상황의 독특성에 대해 맑스주의적·코뮤니즘적 관점에서 새로운 수준의 분석과 논쟁을 자극하기를 바란다"고 책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기대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역자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세계와 범주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내려는 한결 같은 노력"이라며 "철저하게 '맑스' 적이고 ('맑스주의' 적이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이 책은 '노동계급'의 관점과 '맑스'를 통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삶을 창안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혁명의 만회》를 통해 떠돌던 '유령'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만이 남았다. **한글**